

미국 2006년도 농산물 무역전망

2006년도(이하 회계연도)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지난 8월 전망보다 10억 달러, 전년대비 21억 달러 증가한 645억 달러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이후 밀과 쌀의 수출단가가 상승하고, 돼지고기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기 때문이다. 유지종자 수출량은 감소한 반면, 원예작물과 견과류의 수출은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도 농산물 수입액은 내수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대비 38억 달러 증가한 615억 달러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신선 과일과 채소, 포도주 등의 수입이 강세를 보일 것이다. 2006년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17억 달러 감소한 30억 달러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표 1 2001-06년 미국 농산물 무역추이

단위: 10억 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년 전망	
						8월	11월
수출	52.7	53.3	56.0	62.4	62.4	63.5	64.5
수입	39.0	41.0	45.7	52.7	57.7	61.0	61.5
무역수지	13.7	12.3	10.3	9.7	4.7	2.5	3.0

자료 : 미국 농업부, 통계청, 상공부

1. 경제전망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05년 3.6%에 이어 2006년에도 3%대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GDP 성장률은 EU의 둔화된

성장세와 일본의 완만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2005년과 2006년에 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는 1981~82년의 최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유와 천연가스의 가격상승은 미국 농가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며, 향후 유가의 상승에 이은 공산품 가격의 상승은 세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1.1. 선진국 경제전망

2006년 미국의 장기금리는 세계 자금수요의 증가와 미 단기금리의 인상을 감안할 때, 최저 수준을 유지한 2004년과 2005년 1/4분기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 연방지불준비위원회(Federal Reserve Board, FRB)는 인플레이션의 급등을 막기 위해서 단기금리를 꾸준히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물가상승률이 에너지와 공산품 가격 상승으로 3%를 초과한 반면, 2006년에는 에너지 가격 인하에 따라 3% 미만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2006년 달러는 다소 평가절하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캐나다의 2005년 GDP 성장률은 3%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달러는 공산품 가격상승,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요증가, 투자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캐나다는 내년에도 캐나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란 예측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의 GDP 성장률은 2005년에 2%를 넘어선 반면, 2006년에는 다소 둔화되어 1.5%에 그칠 전망이다. 2006년 엔화 대비 달러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다소 평가절상 될 전망이다.

EU-25의 성장률은 2005년에 1%대의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2006년에 1.5%로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급속하게 진행된 유로화의 평가절상으로 유럽의 수출은 다소 둔화되었다. 2006년 유로 대비 달러화는 미국과 EU의 장기금리 격차가 좁아짐에 따라 다소 평가절상 될 것으로 보인다.

1.2. 중국 경제전망

부진한 성장세를 보이는 유럽과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일본을 감안할 때, 중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2005년 상반기에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원자재(raw material) 수요에 대한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서 원유와 공산품 그리고 일부 농산물의 가격은 상승할 전망이다.

2005년 중국의 총수입 증가율은 미국의 수준에 상응할 것이며, 이런 수입 증가세는 세계 경제성장에 호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반면,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유럽과 일부 아시아국가의 경제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9%를 초과할 전망이다. 중국의 경기과열을 완화시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성장세는 2006년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2006년 위안화 대비 달러는 다소 평가절하 되겠지만, 무역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1.3. 개도국 경제전망

2005년 개도국 경제성장률은 거의 6%에 육박할 전망이다. 아시아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기록하는 지역이 될 것이며,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6%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다. 인도의 GDP 성장률은 2004년에 7%를 달성한 이후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2005년과 2006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성장률은 5%를 달성할 전망이다. 또한 아시아의 비중화권 경제의 대다수 통화는 달러 대비 강세를 지속할 것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등 남미 5대 경제권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 4.5%의 성장세를 보이다가 2006년

에는 이 성장세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브라질은 2005년에 3.5%의 성장률을 달성한 이후, 2006년에는 4%로 반등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의 사용을 확산함으로써 고유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켰다. 아르헨티나의 성장률은 2005년에 7.5%를 달성한 반면, 2006년에는 3%대로 둔화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 수출은 페소화의 평가절상으로 2006년까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미국과 밀접하게 연계된 멕시코 경제는 2005년에 이어 2006년에도 3%대로 성장할 전망이다. 강력한 수출지향 정책을 추구하는 칠레의 GDP 성장률은 2005년에 6%를 달성한 이후 2006년에도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한편 구소련의 대다수 국가들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아프리카 지역의 성장률은 국가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겠지만, 연평균 4%를 초과할 전망이다.

1.4. 환율전망

달러(고부가가치 농산물의 무역가중치 반영)는 2004년 7월~2005년 7월 동안 약 17% 평가절하 되었으며, 2006년에도 추가적으로 평가절하 될 전망이다. 2006년에 달러는 유로 및 엔화 대비 평가절상 되는 반면, 개도국 통화 대비 평가절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달러화의 추이는 2006년 미국 농업 및 제조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2. 품목별 농산물 수출 전망

2006년 곡물과 사료 수출액은 밀과 쌀의 수출단가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8월 전망보다 5억 달러 상향조정된 반면, 2005년과 비슷한 163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경질밀(hard wheat) 가격은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으며, 쌀 수출단가도 세계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 8월 전망 이후, 2006년 옥수수 수출량은 기상악화로 인한 운송지연, 아르헨티나의 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5,150만톤에 머문 반면, 수출액은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2006년도 곡물에 대한 전망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세계 곡물의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밀과 잡곡의 수출단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를 반영하고 있다. 2006년도 옥수수 수출량은 전년대비 640만톤, 밀의 경우 80만톤 상향조정 된 반면,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수출액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한편 2006년 쌀 수출량과 수출단가는 중동으로의 수출증대, 세계 공급 감소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유지종자 및 가공품의 수출액은 지난 8월 전망보다 7억 달러 감소한 103억 달러로 하향조정 되며, 대두 수출량도 50만톤 감소한 2,930만톤으로 하향조정 될 전망이다. 2005년도 대두 생산량의 상향조정, 재고증가에 의해 대두의 생산자가격이 하락한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유럽시장에 대한 브라질의 수출경쟁 심화로 인해서 미국의 대두 수출은 지난 8월 전망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대두박 수출량은 수요증대에 힘입어 8월 전망보다 40만톤 상향조정 된 반면, 수출단가는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면화 수출량은 지난 8월 전망보다 30만톤 상향조정 된 반면,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수출액은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반면, 전년대비 수출은 미국 작황호조와 중국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수입증가에 힘입어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축산물, 가금육, 유제품 수출액은 돼지고기와 부산물 수출증대에 힘입어 지난 8월 전망보다 7억 달러, 전년대비 4억 달러 증가한 125억 달러로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해당 시장에서의 질병에 대한 소비자 우려, 경쟁력 있는 달러화 등은 돼지고기 수출을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우병으로 인한 금수조치를 반영하여 전망한 쇠고기 수출은 2005년과 지난 8월 전망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닭고기와 유제품의 수출액은 수출량의 증가와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2006년 원예작물 수출액은 경쟁력 있는 달러의 평가절하, 해외수요의 증대, 가격호조에 힘입어 지난 8월 전망과 동일하며, 전년대비 14억 달러 증가한 15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전과류 수출액은 공급 감소와 수요 증대에 따른 가격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6억 달러 증가한 3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06년 과일과 채소 수출액은 플로리다 지역의 기상 악화에 따른 감귤류 및 사과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선 및 가공 과일과 채소에 대한 해외수요의 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4억 4,500만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포도주, 향유(essential oil), 기타 가공식품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원예작물 수출의 75%는 캐나다, 일본, EU-25, 멕시코에서 이뤄지고 있다.

표 2 미국 품목별 농산물 수출량 전망

단위: 백만 톤

	2002	2003	2004	2005	2006년 전망	
					8월	11월
밀	25.411	24.295	31.179	26.406	27.2	27.2
쌀	3.543	4.478	3.699	4.299	4.4	4.4
잡곡	53.625	46.055	53.770	50.382	54.8	56.5
옥수수	47.058	40.780	48.724	45.138	50	51.5
사료곡물	12.629	11.814	11.647	10.934	10.8	7.3
유지종자 및 가공품	40.229	42.468	32.400	39.558	38.9	38.8
대두	28.925	28.507	24.487	29.607	29.8	29.3
대두박	6.811	5.760	4.728	6.709	5.7	6.1
대두유	1.143	1.027	0.425	0.600	0.6	0.6
쇠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1.950	1.990	1.414	1.567	1.6	1.7
쇠고기	0.831	0.864	0.293	0.204	0.2	0.2
돼지고기	0.546	0.562	0.689	0.882	0.9	1
부산물	0.574	0.564	0.432	0.481	0.4	0.5
닭고기	2.263	2.158	2.121	2.427	2.4	2.5
담배	0.163	0.150	0.163	0.151	0.2	0.2
면화	2.206	2.514	3.021	3.368	3.3	3.6
주요 벌크품목	113.872	105.999	116.319	114.213	119.7	121.2

주 : (1) 밀은 밀가루를 포함하지 않음.

(2) 잡곡은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호밀 등을 포함함.

(3) 주요 벌크품목은 밀, 쌀, 잡곡, 대두, 면화, 담배 등을 포함함.

표 3 미국 품목별 농산물 수출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년 전망	
					8월	11월
곡물 및 사료	14.150	14.839	18.078	16.210	15.8	16.3
밀	3.498	3.909	5.095	4.236	4.0	4.2
쌀	0.737	0.930	1.203	1.257	1.3	1.4
잡곡	5.292	5.147	6.611	5.299	5.5	5.4
옥수수	4.599	4.534	5.984	4.730	5.0	4.9
사료곡물	2.529	2.588	2.678	2.706	2.6	2.7
유지종자류	9.750	10.180	11.192	11.031	11.1	10.3
대두	5.474	6.514	7.463	7.019	7.3	6.5
대두박	1.295	1.126	1.308	1.488	1.2	1.2
대두유	0.454	0.558	0.288	0.351	0.3	0.4
축산물	8.657	9.062	7.043	7.439	7.3	7.8
쇠고기	2.578	3.029	1.129	0.832	0.8	0.8
돼지고기	1.384	1.357	1.700	2.236	2.2	2.4
쇠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0.787	0.791	0.579	0.687	0.6	0.7
가축 및 모피	1.777	1.785	1.763	1.746	1.7	1.8
가금육	2.280	2.104	2.519	3.011	2.8	3.0
닭고기	1.546	1.370	1.692	2.025	2.0	2.0
유제품	0.988	0.979	1.276	1.685	1.7	1.7
담배	1.148	1.001	1.050	0.983	1.1	1.1
면화	2.052	2.854	4.534	3.872	4.5	4.5
종자	0.843	0.812	0.875	0.925	0.8	0.9
원예작물	11.113	11.898	13.310	14.524	15.9	15.9
과일 및 조제품	3.449	3.554	3.839	4.087	4.3	4.3
채소 및 조제품	3.011	3.017	3.162	3.468	3.7	3.7
견과류 및 조제품	1.233	1.490	1.887	2.418	3.0	3.0
설탕 및 열대성작물	2.309	2.452	2.490	2.701	2.8	2.8
주요 벌크품목	18.201	20.355	25.956	22.667	23.7	23.1
총 수출액	53.291	55.987	62.368	62.385	63.5	64.5

주 : (1) 곡물과 사료는 두류와 가공공물을 포함함.

(2) 밀은 밀가루를 포함하지 않음.

(3) 잡곡은 옥수수, 보리, 수수, 귀리, 호밀 등을 포함함.

(4) 주요 벌크품목은 밀, 쌀, 잡곡, 대두, 면화, 담배 등을 포함함.

자료 : 미국 농업부, 통계청, 상공부

3. 지역별 농산물 수출 전망

미국의 5대 주요 농산물 수출시장은 캐나다, 멕시코, 일본, EU-25, 중국의 순이다. 미국의 최대 농산물 수출시장인 캐나다에 대한 2006년 수출액은 신선 과일과 채소, 과일주스, 견과류의 수출 호조와 함께, 원예작물과 돼지고기의 수출량 증가와 가격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5억 달러 증가한 109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06년 남미로의 농산물 수출액은 면화와 곡물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두박과 채소의 대폭적인 수출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2대 농산물 수출시장인 멕시코로의 수출액은 원예작물의 가격 상승, 돼지고기와 부산물, 신선과일, 가공채소의 수출량 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5억 달러 증가한 9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아시아로의 수출액은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의 육류, 곡물, 유지종자의 수출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1억 달러 증가한 22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06년 동아시아로의 수출액이 전년대비 3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출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은 증대할 전망이다. 2006년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면화 수출 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2억 달러 증가한 5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3대 수출시장인 일본으로의 수출액은 곡물과 유지종자의 가격 하락에 힘입어 전년대비 2억 달러 감소한 76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에 대한 돼지고기와 신선 및 냉동 채소의 수출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곡물과 사료의 수출량이 증가하는 반면,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수출액은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표 4 미국 지역별 농산물 수출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5년 비중(%)	2006년 11월 전망
아시아	19.461	21.661	24.341	22.540	36.1	22.6
동아시아	15.830	18.076	20.557	18.395	29.5	18.1
일본	8.307	8.811	8.524	7.832	12.6	7.6
중국	1.770	3.484	6.095	5.290	8.5	5.5
홍콩	1.145	1.060	0.991	0.882	1.4	0.8
대만	1.921	1.946	2.142	2.197	3.5	2.1
한국	2.668	2.761	2.777	2.179	3.5	2.1
동남아시아	2.880	2.943	3.122	3.450	5.5	3.6
인도네시아	0.784	0.918	0.978	0.982	1.6	1.0
필리핀	0.763	0.653	0.685	0.836	1.3	0.9
말레이시아	0.365	0.379	0.376	0.382	0.6	0.4
태국	0.624	0.627	0.679	0.759	1.2	0.8
남아시아	0.751	0.643	0.662	0.695	1.1	0.9
서반구	20.098	21.516	23.252	24.710	39.6	26.1
북미	15.648	16.744	18.015	19.549	31.3	20.6
캐나다	8.588	9.133	9.607	10.350	16.6	10.9
멕시코	7.058	7.610	8.408	9.197	14.7	9.7
카리브	1.489	1.525	1.843	1.848	3.0	1.9
중미	1.219	1.346	1.396	1.511	2.4	1.6
남미	1.743	1.902	1.999	1.802	2.9	2.0
브라질	0.318	0.361	0.325	0.220	0.4	0.3
콜롬비아	0.485	0.523	0.600	0.598	1.0	0.7
베네수엘라	0.329	0.388	0.391	0.351	0.6	0.3
유럽/유라시아	8.174	7.396	8.233	8.601	13.8	8.8
EU-25	6.465	6.314	6.802	6.932	11.1	6.9
기타 유럽	0.859	0.422	0.427	0.468	0.8	0.5
FSU-12 4/	0.851	0.660	1.004	1.201	1.9	1.4
러시아	0.711	0.501	0.736	0.901	1.4	0.9
중동	2.436	2.387	2.743	2.879	4.6	3.1
터키	0.725	0.877	0.916	1.023	1.6	1.1
사우디아라비아	0.354	0.320	0.350	0.345	0.6	0.4
아프리카	2.406	2.256	2.993	2.668	4.3	2.8
북아프리카	1.560	1.204	1.634	1.273	2.0	1.4
이집트	1.020	0.832	0.977	0.808	1.3	0.8
사하라이남	0.845	1.052	1.360	1.395	2.2	1.4
오세아니아	0.501	0.589	0.585	0.745	1.2	0.9
기타	0.215	0.181	0.222	0.242	0.4	0.2
총수출액	53.291	55.987	62.368	62.385	100.0	64.5

주 : (1) EU-25는 기존 EU-15에 10개 신생가맹국을 포함

(2) 기타 유럽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구 유고연방을 포함

자료 : 미국 농업부, 통계청, 상공부

2006년 유럽/유라시아로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2억 달러 증가한 88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며, 이 금액 가운데 미국의 4대 농산물 수출시장인 EU-25가 69억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으로의 견과류 수출액이 증가하는 반면, 대두 수출액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중동으로의 수출액은 터키로의 대두 수출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2억 달러 증가한 31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그밖에 2006년 아프리카로의 수출액은 전년대비 1억 달러 증가한 28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4. 품목별 농산물 수입 전망

2006년 농산물 수입액은 수입식품, 음료, 기타 농산물의 꾸준한 수입 수요 증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38억 달러, 지난 8월 전망대비 5억 달러 증가한 615억 달러로 상향조정 될 전망이다. 이러한 수입 증대는 연평균 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역 및 예산 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반등, 경기회복, 개인소득의 증대, 다양한 식단 및 고품질 농축산물에 대한 수요 증대 등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2006년 캐나다와 멕시코로부터의 생우 수입은 비육장 입식용 30개월 미만 생우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와 결과 최고치인 전년대비 48%(150만 두) 증가한 220만 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수입액은 2005년의 7억 달러보다 두 배 증가한 14억 달러에 달한다. 2006년 쇠고기 수입량은 캐나다 산 생우 수입증가로 인해서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지 않을 전망이다. 2006년 쇠고기 수입액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억 달러 감소한 37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2006년 돼지고기 수입액은 수입 물량이 2만톤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7,000만 달러 하락할 전망이다. 2006년 축산물 수입액은 치즈, 카세인, 기타 유제품 등의 수입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6억 달러, 지난 8월 전망보다 5억 달러 증가한 117억 달러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비스킷, 웨이퍼, 빵, 파스타, 국수, 밀가루, 가공곡류 등 곡물가공품의 2006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2억 달러 증가한 35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들 품목의 수입은 밀, 보리 등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곡물 수입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쌀이며, 다음으로 귀리, 밀 등의 순이다. 쌀 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쌀 가격은 수입 증가와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 곡물 수입량이 증가한 반면, 수입액은 수출단가 하락에 힘입어 감소했다. 한편 2005년에 사료곡물의 수입량이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수출단가의 상승에 힘입어 증가했다.

2006년 원예작물 수입액은 전년대비 24억 달러 증가할 것이며, 이 증가분의 상당부분은 주로 신선 및 냉동 과일과 채소, 식용견과류, 포도주, 향유 등의 수입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증가분의 25% 정도는 가공채소 및 과일, 과일주스, 음료 등이 차지한다. 2006년 포도주 수입량은 전년대비 5억 헥토리터(hl)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화국 등으로부터 저가의 포도주 수입이 증가하는 추이에 있다. 이런 추이가 지속될 전망이다. 2006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3억 달러 증가한 40억 달러에 달한 것이다.

이밖에 수입증가 추이에 있는 원예작물은 멕시코와 칠레 산 아보카도, 멕시코 산 딸기와 망고, 후추, 중국과 남미 산 사과주스, 브라질 산 오렌지주스, 인도, 베트남, 브라질 산 캐슈너트, 멕시코와 캐나다 산 토마토, 캐나다 산 냉동 튀김감자, 스페인과 그리스 산 올리브 등이다. 과일과 채소 수입은 원예작물 수입의 50% 이상, 농산물 총 수입액의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설탕 및 가공품의 수입액의 50%는 12억 달러가 수입된 과자류가 차지할 것이다. 2004년과 2005년 설탕 가격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후 과자류의 수입액 증가세는 가격이 아닌 물량 요인에 의해 주도되었다. 또한 2005년에 중국과 멕시코 산 저가의 사탕류 수입 공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수입단가가 낮아진 바 있다.

커피 가격은 2004~05년 동안 상승세를 유지한 반면, 고품질 콩에 대한 내수 증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천연고무에 대한 수입은 세계수요의 호조에 힘입어 물량이나 가격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지종자와 식물성기름에 대한 수입수요는 국내생산이 증가한 2005년에 다소 부진했지만, 열대성 기름에 대한 수요증가와 올리브 가격상승 추이에 힘입어 2006년에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표 5 미국 품목별 농산물 수입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6년 전망	
					8월	11월
축산물	9.081	8.615	10.374	11.139	11.2	11.7
생축(가금류제외)	1.995	1.673	1.319	1.577	2.0	2.2
적색육	4.187	4.020	5.527	5.717	5.5	5.6
쇠고기	2.749	2.392	3.506	3.772	3.7	3.7
유제품	1.841	1.866	2.333	2.609	2.5	2.7
곡물 및 사료	3.599	3.892	4.192	4.429	4.6	4.7
곡물가공품	2.342	2.706	2.996	3.262	3.5	3.5
원예작물	17.545	20.203	22.895	25.794	28.1	28.2
신선/냉동 과일	3.462	3.662	3.964	4.486	4.8	4.9
과일조제품, 주스	1.469	1.717	1.826	2.170	2.4	2.4
견과류 및 조제품	0.648	0.724	0.952	1.194	1.6	1.5
신선, 냉동 채소	3.120	3.701	4.087	4.499	4.8	4.8
조제품 채소	2.324	2.500	2.759	3.044	3.3	3.2
포도주	2.522	3.186	3.316	3.691	3.8	4.0
맥주류	2.526	2.591	2.805	2.994	3.2	3.2
향유	0.339	0.906	1.825	2.335	2.7	2.6
절화류	1.135	1.216	1.363	1.380	1.5	1.5
유지종자류	1.675	2.009	2.924	2.947	3.2	3.1
식물성기름	1.310	1.595	2.245	2.368	2.6	2.6
설탕 및 가공품	1.710	2.111	2.123	2.306	2.4	2.4
과자류	0.845	1.046	1.148	1.158	1.2	1.2
코코아 및 가공품	1.714	2.273	2.579	2.633	2.7	2.7
커피 및 가공품	1.610	1.949	2.163	2.828	3.0	3.1
천연고무	0.655	1.032	1.331	1.505	1.6	1.6
양념류, 천연약제, 홍차	1.379	1.528	1.625	1.494	1.5	1.5
담배, 종자, 기타 가공채소	1.463	1.444	1.564	1.571	1.6	1.6
기타 음료	0.524	0.629	0.886	1.073	1.2	1.2
총 수입액	40.954	45.686	52.656	57.716	61.0	61.5

자료 : 미국 농업부, 통계청, 상공부

표 6 미국 품목별 농산물 수입량 전망

단위: 백만 톤

	2002	2003	2004	2005	2006년 전망	
					8월	11월
포도주	5.447	6.187	6.337	7.07	7.5	7.6
맥주류	26.711	26.996	28.379	29.301	29.5	30.1
생우 및 송아지	2.337	2.027	1.473	1.494	2.4	2.2
쇠고기	1.067	0.948	1.164	1.218	1.2	1.2
유제품	0.357	0.346	0.378	0.356	0.4	0.4
곡물 및 가공품	5.739	4.721	4.501	4.636	4.9	4.7
신선/냉동 과일	7.454	7.777	7.759	8.189	8.5	8.5
과일조제품	0.903	0.927	0.963	1.064	1.1	1.2
견과류 및 조제품	0.282	0.292	0.32	0.344	0.5	0.4
신선/냉동 채소	4.32	4.732	4.888	4.958	5.3	5.1
채소조제품	1.277	1.24	1.272	1.387	1.5	1.5
식물성기름	1.927	1.841	2.234	2.23	2.4	2.4
설탕 및 가공품	2.059	2.309	2.457	2.788	2.6	3
코코아 및 가공품	0.986	0.977	1.206	1.238	1.4	1.3
커피 및 가공품	1.194	1.332	1.305	1.318	1.5	1.3

주: (1) 포도주 단위는 백만 헥토리터(hl)임.

(2) 생우와 송아지 단위는 두수임.

(3) 유제품은 치즈, 카세인, 버터를 포함함.

(4) 과일조제품은 주스를 포함하지 않음.

자료: 미국 농업부, 통계청, 상공부

5. 지역별 농산물 수입 전망

2006년에 미국 농산물 수입증대로 인해 큰 혜택을 보는 국가/지역은 남미(9억 달러), EU-25(8억 달러), 멕시코(7억 달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각각 3억 달러), 캐나다와 중미(각각 2억 달러) 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주로 과일, 채소, 포도주, 맥주, 육류, 유제품, 식물성 기름, 커피, 코코아, 곡물가공품 등을 미국에 수출한다. 남미 국가들은 미국경제와 밀접한 멕시코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 농산물 수입액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 14.1%로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14.3%)을 유지할 전망이다.

표 7 미국 지역별 농산물 수입액 전망

단위: 10억 달러

	2002	2003	2004	2005	2005년 비중(%)	2006년 11월 전망
서반구	22.292	23.976	26.855	29.843	51.7	31.8
캐나다	10.190	10.252	11.277	11.817	20.5	12.1
멕시코	5.288	5.995	7.023	8.097	14.0	8.8
중미	1.930	2.106	2.251	2.465	4.3	2.7
코스타리카	0.814	0.845	0.903	0.880	1.5	0.9
과테말라	0.642	0.772	0.779	0.895	1.6	1.0
기타	0.474	0.489	0.569	0.690	1.2	0.8
카리브	0.357	0.377	0.364	0.360	0.6	0.4
남미	4.527	5.247	5.940	7.104	12.3	8.0
브라질	1.081	1.465	1.637	1.838	3.2	2.0
칠레	1.124	1.200	1.317	1.531	2.7	1.7
콜롬비아	0.905	1.031	1.133	1.379	2.4	1.6
기타	1.417	1.551	1.854	2.357	4.1	2.6
유럽/유라시아	9.052	10.658	12.515	13.703	23.7	14.6
EU-25	8.729	10.301	12.078	13.236	22.9	14.0
기타	0.284	0.314	0.378	0.421	0.7	0.5
FSU-12	0.040	0.043	0.060	0.046	0.1	0.1
아시아	5.042	5.998	7.359	8.023	13.9	8.7
동아시아	1.756	1.952	2.481	2.662	4.6	2.9
중국	0.974	1.184	1.579	1.790	3.1	2.0
기타	0.782	0.767	0.903	0.873	1.5	0.9
동남아시아	2.550	3.282	3.993	4.377	7.6	4.7
인도네시아	0.910	1.158	1.445	1.604	2.8	1.8
태국	0.708	0.889	1.027	1.086	1.9	1.1
기타	0.931	1.235	1.520	1.687	2.9	1.9
남아시아	0.736	0.765	0.885	0.984	1.7	1.1
인도	0.670	0.692	0.810	0.902	1.6	1.0
오세아니아	3.179	3.318	4.035	4.177	7.2	4.3
호주	1.894	1.976	2.387	2.487	4.3	2.6
뉴질랜드	1.226	1.287	1.573	1.618	2.8	1.7
아프리카	0.886	1.198	1.344	1.330	2.3	1.4
사하라이남	0.797	1.072	1.191	1.205	2.1	1.2
코트디부아르	0.241	0.440	0.497	0.565	1.0	0.6
중동	0.502	0.536	0.593	0.641	1.1	0.7
터키	0.321	0.313	0.352	0.360	0.6	0.4
총 수입액	40.954	45.686	52.701	57.716	100.0	61.5

자료 : 미국 농업부, 통계청, 상공부

지난 15년 동안 미국 농산물의 수입원은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미국 내 농산물 수입시장에서 개도국(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선진국(캐나다,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등)에 비해 감소했다. 미국 내 수입된 가공식품에서 차지하는 개도국의 점유율은 1997년 37%에서 34%로 하락했다. 특히 개도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미국 내 신선 및 냉동 가공품 수입시장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1992년 89%에서 최근 79%로 하락했다. 미국 전체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도국들의 시장점유율이 점차 감소하여 1977년에 74%, 1995년에 55%에 이어 최근에 49% 미만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런 시장 변화의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개도국에 비해 선진국으로부터 증가해 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자료: USDA/ERS. Outlook for U.S. Agricultural Trade(2005. 11. 22)
(김상현 ksh3615@krei.re.kr 02-3299-43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